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3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상하 · 요한일서

요한이서 · 요한삼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3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상하 · 요한일서
 요한이서 · 요한삼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마 4:17)라는 참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담대한 믿음(창 15:1)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선훈련 후지원'의 선교방향에 발맞추어 모든 성도들이 선교훈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입니다.(시 119:24)

우리는 믿음의 눈(마 20:17~34)을 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마 21:14~17)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마 28:5~6)

그리고 장차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계 21:1~7)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열방으로 나아가 전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찬 162장)

2008년 3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때에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합니다.(37~38절) 성전건축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건축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공사 진척상황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만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해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낱 덩치 큰 건물 일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11~13절에는 성전건축에 관하여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전건축의 의의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주시시키고 여호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의 모든 구조는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은 외식적이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의식만 주장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주님의 보혈과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 생명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실존으로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यो”(왕상 6:12)

기도 제목 ① 헌신과 순종이 있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전건축에 착수하여 7년 만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3년간의 오랜 공사 끝에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2절) 재산이나 배우자, 자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거처할 왕궁부터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먼저 건축했듯이 우리 역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보다 내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3~51절) 솔로몬은 왕궁이 건축되자 이제는 성전에 소용되는 각종 기물과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뜰에 배치될 모든 기구들은 순전한 놋으로 만들었는데,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한결같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기물의 용도상의 이유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외모의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내면의 순결과 중심의 헌신을 더욱 원하신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으며 복음에 참여하는 은총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단과 진설병의 금 상과”(왕상 7:48)

기도 제목 ① 형식적이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모인 가운데 다윗 성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겨져 지성소의 그룹 아래에 안치됩니다.(1~6절) 언약궤의 성전 안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출 25:22), 언약(출 25:16), 거룩(삼상 6:19~21)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해도 그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고전 3:1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고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62~66절) 성전 봉헌식은 14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무수한 양과 소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화목을 위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레 7:13~15)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요일 2:2)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이 있기 원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왕상 8:6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공적인 건축, 활발한 대외무역 및 외교 등과 같은 업적들로 인해 솔로몬은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15~28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나시어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지만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물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도 약탈당하도록 내버려두시겠다는 경고하십니다. 10~28절에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엿볼 수 있는 활발한 건축사업과 대외무역과 외교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막대한 경비가 드는 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부는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와 이스라엘의 번영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솔로몬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과의 밀접한 관계유지를 통한 성공적인 외교, 동서를 잇는 지형학적인 이점을 활용한 중개무역을 통해 얻은 엄청난 부 등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왕상 3:13,15)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지식, 지혜를 조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왕상 9: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의 부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왕상 9:4)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용하여 굳건한 왕조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눅 11:31)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14~29절에는 솔로몬이 누리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절정에 달해 궁전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사용하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솔로몬에게 재산과 지혜를 크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마병의 수를 늘리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불신앙적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교만은 성도가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죄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믿을 때 교만은 누구든 예외 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매순간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왕상 10:24)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색채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솔로몬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접 국가의 왕실과 정략결혼을 시도했고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방 출신 후궁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그 아들 대에 시행할 것과 한 지파만은 남겨 두시겠다는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언약(삼하 7:15~16)을 지키시기 위한 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를 불드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4~43절은 솔로몬을 대적한 하닷, 르손, 여로보암의 반역사건을 차례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죽음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대에 일어난 반역사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지 않다면 결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왕상 11: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② '선훈련 후 지원'의 선교방향에 발맞추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으며 르호보암의 학정과 여로보암의 집권야욕 때문이었습니다. 북쪽 열 지파는 왕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치하에서의 강제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사리분별에 밝은 연륜 있는 신하의 충고보다 젊은 신하들의 아첨을 듣고 무모한 강압정치를 선포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시 1:1)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유 :20)

20~3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영적 타락이 가속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강압 정치를 거부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여로보암은 유다와의 정치적 결별뿐만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도 저버리는(16절)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벰엘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하고 신령한 복보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불신앙의 행위에서 떠나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롬 12:2)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왕상 12:20)

기도 제목 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겜과 부느엘에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벧엘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 남왕국 유다와의 철저한 종교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왕상 12:25~28) 그러나 얼마 후 여로보암은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벧엘 제단의 훼파예언을 받고 그 징조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벧엘 제단의 훼파예언은 약 300년 후 유다의 요시아 왕이 행한 종교개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왕하 23:15~16)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11~34절은 벧엘 제단의 훼파를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거하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과 술수에 속아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유다로 돌아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과 도중에 어떤 교제로 인한 지체도 용납하지 말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8~9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벧엘에 거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 사자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이나 유혹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회개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벧엘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왕상 13:3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은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의 죄악을 경고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징조로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셨으며 그래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가문에 내려질 재앙과 멸망의 예언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왕상 15:33~34) 이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1:9)

21~31절도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의 죄악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 삼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대하 11:17) 그러나 그도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대하 11:21)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있던 르호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애굽 왕 시삭에 의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행적을 보면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십자가를 통한 거류남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왕상 14:1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한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 과정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3절) 그는 부친인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도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암의 행적에 대한 짧은 기사와 더불어 다윗의 신실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아비암의 온전치 못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키는 이유가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11, 14절) 그는 선왕들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만든 태후의 위를 폐하는 등 과감한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상숭배의 온상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우상숭배의 여지를 남겨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25~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답과 바아사, 이 두 사람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며 북이스라엘을 더 깊은 영적 타락으로 몰아간 장본인들입니다. 2월 6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지만 갈보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박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종려주일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그 길을 오늘 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왕상 15:13)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소서, ②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초대왕 여로보암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왕상 15:25~34)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악습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아사 또한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아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아들 대에 가문이 멸절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9~13절) 우리도 악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롬 12:2)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21~34절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오므리와 아합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오므리의 율례'(미 6:16)를 제정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상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악행은 그 아들인 아합 대를 거치면서 이방종교를 이스라엘의 공식종교로 받아들이는 더 악한 행적으로 나타났습니다.(31~33절)

인간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군중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므리와 아합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의 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왕상 16:33)

기도 제목 ① 날이 갈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수요성경공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영적 암흑기인 아합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야의 예언, 사르밧 과부 이야기,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엘리야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종교의 본산지인 '사르밧'에서 이방여인인 한 과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보여 줍니다.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 오라"(11절)는 엘리야의 한 마디는 과부에게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엄청난 요청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먹어야 할 마지막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동안 이방인 과부 사르밧여인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의 것을 전부 내어드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방여인이 헌신과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헌신은 두려움을 물려가게 합니다. 절망적인 문제들로 가득찬 이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림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며(4~6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왕상 17:24)

기도 제목 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진정한 헌신을 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뭄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이었으며 이 가뭄이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신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뭄은 우상숭배에 대해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18절) 그러나 우상 숭배에 기울어진 자들은 바알신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신실한 백성들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과 엘리야는 마침내 갈멜 산에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엘리야가 승리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큰소리 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바알 선지자들의 소리는 죽은 신을 향해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으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37절) 하는 기도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하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왕상 18:37)

기도 제목 ① 나를 구원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심한 좌절에 빠진 엘리야는 호렙 산으로 도피합니다. 갈멜 산에서 통과하게 승리했음에도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엘리야는 더 큰 낙담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엘리야에게 아직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은 자' 칠천 명이 있다는 사실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15~18절) 좌절과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갈멜 산에서의 승리 이후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당한 일로 분노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하였고 낙심하였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4절)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십니다.(5절) 호렙 산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희망과 체념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새로운 사명(15~16절)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물음은 새로운 물음이 아니고 질문 받는 자를 일깨우며 부르는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한 자신에게도 할 일이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 오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우뚝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두 차례나 침공하였으나 벤하닷의 우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패배로 끝났습니다. 결국 벤하닷은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굴욕스런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13,28절)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셨으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아합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아합의 승리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며 벤하닷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벤하닷의 술책에 걸려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신 벤하닷을 놓아 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42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는 군중으로부터 환호받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겻세마네와 갈보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직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 다”(왕상 20:42)

기도 제목 ①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합시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떠난 시대라는 점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이 타락한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면, 나봇 포도원 사건은 사회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과(1~4절), 이세벨의 간계(5~10절), 나봇의 죽음(11~16절), 아합과 이세벨이 받을 심판(17~26절), 그리고 아합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27~29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면에는 왕권의 강화, 사치와 쾌락과 허영생활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동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일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부르기를 허락할지니”(레 25:23~24)라는 율법을 무시한 채 외견상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그 내막을 알았다 해도 최고 권력자인 아합에게 겁 없이 항의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합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곧 아합의 가문이 멸절하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19~24절) 엘리야의 엄중한 저주선포로 아합의 회개장면(27절)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29절) 있습니다. 이는 악인에게까지 회개에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22장에 나타난 아합의 사악한 행동은 그 회개가 일시적이며 충동적으로, 자기부인 없는 회개가 과멸을 초래함을 반증합니다. 철저한 자기부인과 회개함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도 하니”(왕상 21:3)

기도 제목 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연합예배에 참석하게 해 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방인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여호와 신앙과 이스라엘에 크나큰 해악을 끼쳤던 아합의 시대가 끝나며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20:42절)가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 탈환을 꾀하자(1~12절)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패전을 예언합니다.(13~28절)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결국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길르앗 라못에서 전사하며 그의 시체를 개들이 핥는 수치까지 당합니다.(29~40절) 아합의 출정계획은 여호사바트의 동맹, 400명(6절)의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예고 등으로 자신감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합을 꺾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자 하는 거짓말하는 영의 꾀임이었습니다.(20~23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아합의 계교나 노력은 헛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함을 봅니다. 41~50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여호사바트의 유다 통치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1~53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의 악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관한 기사로 열왕기하와 그 내용의 접촉점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보혈의 은총을 심령 가득히 채우며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겿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까지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사바트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한 신지 물어 보소서”(왕상 22:5)

기도 제목 ①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시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아합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즉위하였으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우상 바알세뱃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알세뱃에게 묻은 왕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엘리야의 사역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미혹되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시야는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기는 커녕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한 엘리야를 군사를 보내어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15절) 하십니다. 이같은 자세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전도자의 용기를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참된 용기와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왕하 1:15)

기도 제목 ①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엘리아의 승천 전(1~11절)과 엘리아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등장(12~14절) 그리고 엘리사의 초자연적인 표적과 본격적인 사역(14, 19~25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엘리아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포악한 아하시야 왕 앞에서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위기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한 엘리아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갈등을 줍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신음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롬 15:5) 왕은 강포를 행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패역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경책하고 인도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시대에 걸쳐 만민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흐려진 이 시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아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왕하 2:21)

기도 제목 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엘리사의 사역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엘리사는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국력의 약화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켜 백성들이 힘겨워 할 때 소명을 받았습시다. 왕인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터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행 20:23~24) 복음을 위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서려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일깨우며 성도들이 온전히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군사적 열세와 여전히 남아 있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13~20절) 죄악이 극심한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돌아보면 삶의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엡 2:4)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최후의 만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갓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지신 고통스런 십자가,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왕하 3:17)

기도 제목 ① 단기선교를 위한 헌신된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②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부르심을 따라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살았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선지자직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멸망으로 내달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역사 가운데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과부를 도와준 사건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은혜와 공활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보셨습니다.(고전 1:17)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수벰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과 질서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존중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의 권위가 인정되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성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2~43)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고통 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왕하 4:9)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②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진심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해 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섬리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1,3,4,15,17절)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일곱 번이나 씻으라고 한 것은 완전한 순종에 대한 요청으로서 최대한의 인내까지도 포함된 명령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잠시 자기의 신분에 따른 체면 때문에 엘리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분노하였지만 겸손히 순종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행한 지혜로운 태도는 주인을 노하게 하지 않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13절)라는 존경과 충성으로 나아만이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히 요청한 사실입니다.

이 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어린 소녀 하나' (2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성이 이방 땅에도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소녀를 통하여 이방에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물을 받는 부패한 시대에 예물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엘리사의 순수한 신앙과, 엘리사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한 어린 소녀, 주인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끈 나아만의 종을 통하여 이방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안목으로 판단했을 때 지극히 낮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며 그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또한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왕하 5:14)

기도 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②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깊게 새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선지생도들이 요단 강가에서 거처를 넓히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그 중 한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강에 빠뜨리자, 엘리사가 이를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아만의 병을 고친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나아만의 사례를 받았더라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굳이 이처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쉬운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적은 자신들의 계획을 미리 아는 엘리사로 인해 번번히 공격에 실패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사로잡고자 군사를 보내지만 오히려 그 군사들이 엘리사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냥 돌려보낸 이 사건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대적들이 무력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무력하게 된 대적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슬픔과 실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왕하 6:16)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게 하소서. ②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의 경제사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이 예언의 성취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던 네 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밝혀집니다.(3~11절) 당시 사마리아 성의 형편상 경제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엘리사의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만 이루어진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시 62:11)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먼저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고전 9:16) 말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9절) 사실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냉대를 받았으며 급기야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아람에게 와서 항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으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방을 향해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라는 히브리서 기자와 고백이 곧 복음 전도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왕하 7:7)

기도 제목 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빛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빛 된 생활을 강조합니다. 빛 된 생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7절)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귀를 가능하게 하실 분도 역시 “빛”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딤후 6:16)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의 사귀 속에서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자기부인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기도 제목 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과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1~11절)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12~17절)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18~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10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세상의 매혹적인 약속들이 지니는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16절) 합니다. 그런 후에 18~27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미혹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18~22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25절) 이 생명의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원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요일 2: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도의 자녀 된(1~3절)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하며(4~9절)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 것(10~24절)을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속성을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13절) 그리스도인에 대해 세상의 미움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때에도 의아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미움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1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요 16:3)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성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일 3: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2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3절)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완전하신 인성을 들어 분별하도록 합니다.(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됨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9~10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 온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임을 수없이 들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증거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셨습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강조되어 아름답게 미화되기 쉬운 이 장은 형제 사랑의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기에 앞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소스라치도록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적셔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영생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정한 확신을 가질 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때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1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4~5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7~8절)입니다. 4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14절)에 이어 5장에서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9~10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확실합니다. 4장에 있는 ‘요한의 증언’과 5장의 ‘하나님의 친히 증언하심’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생명이며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13절)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는 동일한 기록 목적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우리는 복음안에 굳게 서서 이 증언을 믿음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의 실천적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21절) 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인사말에서부터 진리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그에 바탕한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근거합니다.(1~3절) 사랑이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4절)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5~6절)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7절) 7절과 병행을 이루는 요한일서 4:2 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요일 2:18,22,26)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9절)

이 장이 쓰여지게 된 것은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부에 이단이 들끓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위기는 현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 철학과 혼합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며 복음이 흐려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상황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영원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은총의 길을 걸으며 우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요이 1:3)

기도 제목 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②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1절) 가이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2~4절) 또한 저자는 가이오가 순회 전도를 위하여 나그네 된 자들을 선대하고 많은 도움을 준 일에 대하여 칭찬합니다.(5~8절) 앞에 내용과는 반대로 순회 전도를 위하여 나그네 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접대하는 자들 까지도 내어 쫓은 디오드레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9~10절)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는 못 사람과 진리와 저자가 증거하는 선한 사람입니다.(11~12절) 조만간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과 간단한 문안 인사를 함으로써 서신을 맺습니다.(13~15절)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한 것이 곧 영혼이 잘 되는 척도인 양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느 한 쪽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만 받았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차원에서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바른 신앙관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복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요삼 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축복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파송을 준비하는 팀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선교현지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3월 구역교재 초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영원히 확정된 죽음에서 해방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안을 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금요일	본 문	제 목	초 점
0229	시 119:24	주의 만찬	주의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자
0307	마 20:17~34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0314	마 21:14~17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0321	마 28:5~6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0328	계 21:1~7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게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주의 만찬

| 초 점 |

주의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자

| 찬 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시편 119:24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 11:24~25) 우리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지금 교회에서의 내 위치에 만족하십니까?
- 지금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매순간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학벌, 가문 등 외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롬 7:24

빌 3:8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질문을 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진짜' 인가?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할 진짜 진리입니다.

시 119:24 / _____ 나의 _____ 이요 나의 _____ 니이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까?
- 혹시 친구들이나 컴퓨터, 은행으로부터 도움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적인 것들 중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 자신이 자은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의 씨앗일 뿐 아니라 원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갈 3:22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닌 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히 10:2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마 16:24~25

※ 현재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순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매순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유 :20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전 3:2~8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며 무가치합니다. 세상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을 정약해 보신 뒤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나누어 보십시오.

벧전 1:7~9

예수님을 기념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기념해야 합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을 먹으며 이 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엡 2:3~6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참 기쁨이며 유일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증거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기념하며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기쁨으로 풍성할 것입니다.

※ 내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 33:29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충고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참 기쁨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제2차 성찬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소서
2.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소서

2과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 초점 |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 찬송 |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 본문 | 마태복음 20:17~34

¹⁷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¹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¹⁹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²⁰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²¹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화려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 천국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를 유혹하는 성공과 행복의 속임수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렸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의 초점에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욕망들로 가득했습니다.

마 20:21~2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이 아닙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적 맹인이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 영적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 20:26~28

열두 제자 모두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영광만을 기대하였습니다.

※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은밀한 욕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약 1:14~15 / 오직 각 사람이 ☐☐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됨
아니 ☐☐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가 장성한즉 ☐☐을 낳느니라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순절 기간 내내 열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좇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먼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마 20:29~31 /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_____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_____
_____ 하는지라

두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 20:32~34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요청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와 권력을 원하였습니다.(마 20:21) 반면에 두 맹인은 눈 뜨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영광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고전 1:23

골 2:15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좇습니다.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기 보다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감추인 모습입니다.

※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롬 7:23~24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이 내 ☐☐의 ☐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의 ☐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닫혀있는 영안을 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대답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살전 5:8 /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과 □□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의 투구를 쓰자

벧전 1:13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도록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며 좁은 길을 걷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2.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주소서
3. 구역원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3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 초 점 |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 찬 송 |

충현찬양곡집 59 주기도

충현찬양곡집 3 거룩한 성

충현찬양곡집 50 종려나무

| 본 문 | 마태복음 21:14~17

⁽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⁶⁾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⁷⁾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웃 마을로 보내
시며 나귀들과 함께 매여 있는 특별한 나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마 21:1~2

마 21:6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
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따르
던 사람들은 크게 소리칩니다.

눅 9:9

마 21:9 / _____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써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신 다윗의 자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 21:12~13

이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 21:14

예수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며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성전 안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종교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마 21:15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_____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하여

시 8:2

구원의 문이신 다윗의 자손

성전 관리인들에게서 배척당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을 예표합니다.

사 29:18

마 11:5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다윗의 자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맞아 주십니다.

눅 19:10

※ 다윗의 입성(삼하 5:6~8)과 예수님의 입성과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손이 그들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윗의 자손이셨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린이들은 진실로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막 11:10

요 12:13

하나님의 종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 대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경건하게 보였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는 찬양대신에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마 11:16~17

마 11:25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히 믿지 못합니다. 많은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벧후 3:18

롬 15:11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모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구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 구역원들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 초 점 |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 찬 송 |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 본 문 | 마태복음 28:5~6

☞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 부활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과 예수님과의 부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삼일 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 무덤에서 여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써 보십시오.(마 28:1~7)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따뜻한 햇볕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소망의 빛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 28:6

예수님이 걸으신 구속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 1:21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 □□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악한 종교지도자들에 대해 경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마 23:2~3

마 23:15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믿음의 실천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골 1:19~20 /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의 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2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흠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은 갈기 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기사를 정리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부활은 인간이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요 11:24~25

※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 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활카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 28:18~20

※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에서 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4:14 / 내 이름으로 _____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 14:17

갈 2:20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딤후 2:5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라

요 14:1~2 / 너희는 마음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계 22:13 / 나는 와 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믿음을 실천하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소서
2. 부활의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비추어 주소서
3. 구역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5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 초 점 |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자

| 찬 송 |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본 문 | 요한계시록 21:1~7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㉕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㉖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도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21장과 이사야 65장(17~25절)이 증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것에 싫증을 내고 항상 새 것을 구입합니다. 새 것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흥분되지만, 새 것조차도 결국 헌 것이 되어 싫증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지속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 21:5~6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은 메사야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새 창조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생
명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생
명을 얻게 됩니다.

요 1:12~13

고후 5:17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 5:20 /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된 ☐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의 영혼을 ☐☐에서 ☐☐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
에 있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 1:25~27

※ 요한복음 3장을 읽은 뒤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에 울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전 15:50~53

살전 4:16~17

우리가 살았든지 이미 죽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옛 몸은 영원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즉시 변할 것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몸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입니다.

요일 3:2 / 사랑하는 자들아 _____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_____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 만물이 새롭게 될 그 날을 준비하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오,

계 21:2~4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다시 세우실 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계 21:5 /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_____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6~7

만물이 새롭게 되는 순간 이전에 존재하던 만물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창조물들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깨끗하도록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벧후 3:10

계 21:10

※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두어야 합니다.

계 3:12

죄인인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날,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요 3:3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의 □□를 볼 수 없느니라

요 5:29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의 부활로 나오리라

만물이 새롭게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떤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매순간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소서.
2.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3. 구역원들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¹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¹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¹⁶⁾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¹⁷⁾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태복음 21:14~17)

마태복음 21장의 첫 절부터 본문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마치 환상적인 액션 영화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웃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들과 함께 매여 있는 특별한 나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찾으면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데려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3절)고 말하면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새끼를 데려와 그 위에 자신들의 겹옷을 엮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 9:9)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9절)

성전에 들어가신 다윗의 자손

마치 이 놀라운 광경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십니다.(12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금지하시며 매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다”(13절) 이렇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도중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 있는 중에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지금은 그냥 가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며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성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성전의 관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노를 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16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8:2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구원의 문이신 다윗의 자손

이와 같은 매우 놀랍고 기이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성전 관리인들에게서 배척당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 관리인들은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부자들에게 사용했던 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이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사 29:18)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요한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5) 예언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다윗의 자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맞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시는 바쁜 와중에도 맹인과 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손이 그들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윗의 자손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하 5:6~8은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이것은 성전의 관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주님을 찬양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15절)라고 노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어린이들처럼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메시아를 진실로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 대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할 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 11:16~17)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진리가 드러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보였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영적 노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종교적 특권을 가진 기관들은 메시아를 철저히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지식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성전에서 순수하게 진리를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분이 영적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3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